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주일공동예배 후 12시 30분부터 공동체운영위원회 모입니다.
- 다음 주일 예배후에 역할공동체 각 실행위원회 모입니다. 2022년 예산안 작성을 위한 모임입니다.
- 기독교대안학교연맹 컨퍼런스가 10일(월)-11일(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한국대안교육기관 총회와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1주년 감사예배가 12일(수) 대전 새로남기독교학교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2 호

2022년 1월 9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동굴속의 쾌락의 삶과 그 너머에 있는 빛나는 삶 2

십자군은 종교가 일으킨 종교전쟁이 아닌 인간의 욕심이 한껏 발휘된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 안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중심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녀사냥 또한 그 당시 일어난 일들을 몇 가지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간의 독단적인 판단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권력을 쥐고자 하는 인간이 벌인 기행적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벗기 위해 하나님을 마녀사냥하고 하나님 탓하며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 왔습니다. 긴 시간동안 우리를 속여 왔던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가르쳐져왔던 교육으로 마비시키려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어두움을 벗기셨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과 뜻이 같지 않으면 불태우고 죽여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진리의 빛으로 비춰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죽어가는 것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중세의 어두움에서 깨어나게 불을 지핀 것도 교회 안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강한 통일성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던 종교를 깨운것도 교회였습니다. 잠들어있던 이성을 깨운것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그러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 시작은 언제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 옆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는 언제나 풍성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감싸고 치료하고 빛을 비추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것을 사람들과 나누

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 일에 대해 비아냥거리고 업적을 축소시키고 감추려 합니다. 오히려 이것인 인간성의 승리인 것 마냥 포장하기도 합니다. 동굴에 사람들을 묶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주머니와 생명을 담보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동굴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동굴에서 나오는 방법은 별 것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의 삶에 감화받는 것,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우연일수도 있고 노력일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단순한 단백질덩어리였던 생명체는 더욱 송고한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간은 참 생명과 그 안의 의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가 우리에게 비추이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며 죄와 그 행태들은 자연스레 미워지게 됩니다. 양심의 소리는 더욱 명확해져 다른사람을 향하던 손가락은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웃에게 더욱 관용적인 사람이 됩니다. 참으로 동굴에서 나와 풍성한 생명과 그 안에 역동하는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었고 나 스스로도 변화시키지 못하던 자아를 온전히 변화시키며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올해 사랑방 안에 풍성히 넘치길 원합니다. 참 생명이 넘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실현되며 경험되어지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빨간약과 파란약이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오실 것입니까? 혹은 그 즐거움에 머무르시겠습니까?

## 한주간의 말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 왔다.  
“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  
<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성경 : 잠언 1 : 1-19

제목 : 지혜의 시작, 하나님 경외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390 342 379 212

### 1. 내용관찰(What)

- 1) 1~7 잠언의 기록 목적
- 2) 8~9 부모의 훈계
- 3) 10~19 범죄자들

### 2. 내용의 의미(Why)

- 1)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르침을 따르자.
- 2) 부모에게 순종하자.
- 3) 죄에 동참하지 말자.

### 3. 의미의 적용(How)

- 1)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자.
- 2)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자. 또한 어떤 부모인지 생각하자.
- 3) 우리의 자아를 건강하게 만들자.

##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요14:9)

이 말씀은 상대방을 꾸짖거나 놀라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친숙해지기가 가장 어려운 분이 있다면 예수님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던 오순절 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지 악령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꽤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눅10-18-20)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령 안에서 나누게 되는 예수님과 엄청난 친밀함입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요15:15). 진정한 친구 관계는 이 땅에 흔치 않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생각과 마음과 영이 같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축복도 받고 주의 말씀도 머리로 알지만 정말로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요16:7)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한 관계 속에서 제자들을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그분의 제자가 예수님께로 한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가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요15:1-4)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로부터 동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비통한 마음이 전혀 없이 언제나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은 자신의 이미지를 남기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은 오직 예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중에서.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마태복음 3 : 16-17 인도자  
31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이사야서 43 : 18-19 인도자  
289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누가복음 3 : 15-17, 21-22 설교자  
264 사랑방  
“ 세례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 정태일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436 다함께  
인도자  
516(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종필 이현숙 / 봉헌위원 : 진정행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 공동기도문

저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해주십시오. 아멘.

## 세례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세례요한의 사역. 세례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광야의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는 먼저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라.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가 했던 두 번째의 사역은 회개의 세례, 즉 죄 씻음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대 전역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겸손. 세례요한이 베푼 특별한 사역과 그가 보였던 인상적인 모습들은 사람들에게 그가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신의 세례와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세례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안된다라며 자신을 매우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몸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끌어가실 때, 사람들을 함께 참여시키십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물세례를 베풀었지만,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세례는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답게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이어람 집사

### 잘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나에겐 지난12년간 일주일에 두번씩 현장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있었다.

세상 그런 무논리가 있을까 싶은 대화들..

괴상한 퀴즈에 열심히 답을 찾아 헤메는 대담들..

질문은 있으나 질문자 조차 답을 모르고, 그럼에도 냅다 지른답이 정답으로 둔갑하여 주변의 찬사를 자아내고....

심지어 비밀이라는데 쉽게 흘러나오는 최신 열애설까지..

이 방송국의 현장은

바로 아이셋을 어린이학교까지 등교시키는 내 차안이다.

가끔씩은 생산적인 대화도 오간다. 어느날엔가 학교의 개가 새끼를 8마리 낳은 것이다.

그 새끼강아지들의 이름짓기는 등교시간 20분 만에 정해졌다.

그 이름도 유명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 일요일 그리고 평일까지 순식간에 만들어진 것이다.

허약하게 태어난 수요일이 일찍이 무지개다리 건넜지만, 한동안 '일주일 강아지'들의 일상을 전해듣기도 했다.

그렇게 아이들을 어린이학교로 실어나르며 들을 수 있는 나의 소확행 시간이었다.

식사설거지 봉사하러가는 날은 아이들 표현으로 '남아도 되는날'이다. 못이기는척 "딱 한시간이다!" 하고 말하지만 이 시간 또한 내가 은밀히 즐기는 시간이다. 설거지 끝내고 학교 앞마당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걷다보면 온전히

계절을 느끼게 되고, 편안한 친화감에 빠져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된다. 곳곳에 아이들의 흔적들을 둘러다 보는 재미도 솔솔하다.

절대 비밀이라며 귓속말로 알려준 몇몇 아이들의 노상방뇨장소도 결눈질하며 둘러보고,

고학년만의 비밀 아지트에 심어진 딸기를 몰래 따먹으면 그 또한 얼마나 맛있는지...

테마수업중에 만든 듯한 흙으로 빚은 작은토기들이 버려져 있길래 집에 가져와 우리집 다육이의 화분이 되었다. 지금도 아침마다 그 토기화분을 둘러다보면 어린이들의 재잘담이 들리는 듯하다.

12년 방송국은 이제 끝이 난다. 막내이자 둘째아이가 어린이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멀리 떠나는건 아니다. 그럼에도 섭섭한 마음이 너무커서 슬프기까지하다.

어린이학교와의 추억이 멈춘다는 것만으로도 슬프다.

나이 오십이 다 되어가도록 감정의 분리가 세련되지 않아 고마움과 그리움이 섞이면 울음으로 표현이되니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아직도 12년의 정을 변변히 표현하지 못해 고민이었는데, 마침 이 지면을 빌어 말씀드리고자 한다.

저에게 땅에 있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신 어린이 선생님들,

우리 재원이 정원이 잘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린이 · 멋쟁이학교 졸업생 최재원 · 정원 엄마 정유정 집사

## 새해에 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12월 말부터 두 주간 추운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3방에서도 그 추위는 문을 닫아도, 커튼을 쳐도 끝내는 이불 속으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첫 겨울은 셋이서, 둘째 겨울은 둘이서, 그리고 셋째 겨울은 혼자서 3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올겨울이 특히 추워서인지 잠이 안 올 정도의 추위는 새해의 복마저도 얼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끝이 없겠다 싶어서 뉴스라도 봤더니, 둘째 날에는 '코로나로 실직한 50대 남성 고독사.' 셋째 날에는 '탈북민 다시 월북.' 가슴에 무언가가 쿵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전달과정을 신영복 선생님은 "머리, 가슴, 손, 발"로 표현하셨습니다. 관찰보다 애정이, 애정보다 실천이, 실천보다 입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으면 뭐 합니까, 모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사랑이 없으면 그저 지식일 뿐인데. 마음이 있어서 발을 동동 굴리면 뭐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일 뿐인데. 그렇게 실천으로 전달했을 때, 우리는 '새해 복을 전달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입장으로 함께 서서, 사랑방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이곳에서 많이 들었던 인물 중 하나가 이상양 전도사입니다. 그 젊음이 굳이 망원동 쪽방촌으로 두 발을 옮겼던 것은, 예수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로 표현되었던 예수 옆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치열했던 그를 사랑방은 종종 설교 중에, 가르침 중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를 벗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독사의 나이가 50대로 내려오고, 탈북했던 이가 괴로움에 못 이겨 다시 돌아가는 새해입니다. 포천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고, 무림리에 독거노인이 많다고, 근처에 지적장애인들의 교회가 있다고 알고 있고, 보고 있는 새해입니다. 이 예수들을 땅 위에 있는 하늘나라에서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그 복이 예수님의 것이었기에 예수들에게 돌려주는 손이 될 때, 그 시간이 예수님의 것이었기에 예수들과 함께하는 발이 될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늘나라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랑방이 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 선교공동체와 함께 예수님께 전달되는 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돈희 청년

##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고린도후서 4:16-18

인도 : 정재훈 목사

기도 :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미안마를 위해>

지난해 12월 24일 미안마 동부 카야주 프루소구 모소 마을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4명을 포함해 최소 35구의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다. 미안마군이 미안마군-반군부 세력 간 무력 충돌을 피해 도망치던 주민 등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안마 상황을 감시하는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미안마 군부의 폭력으로 인해 1천400명 이상이 숨지고 1만1천300여명이 체포·구금됐다.

###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새터마을>

- 1) 모든 가정이 순조로이 잘 연합되게 하시며 흩어져 있는 새터마을 가족들이 각자의 삶을 잘 정리하여 하나됨을 이루어 가도록,
- 2) 봄 농사와 새터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들이 순조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 3)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가치를 신실하게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들이 다양하고 성실히 잘 준비되어 가길 기도합니다.

###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시무식과 함께 한해의 시작을 잘 하도록
- 2) 추위로 인한 어려움과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한 주간의 쉼을 마치고 생활공동체 식구들은 시무식을 시작으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생활공동체 임원들이 순서를 맡아 시무식을 진행하게 되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2022년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해주시기를 구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독일에서 3개월간 머물기로 한 울리안, 엘라 청년이 공동체에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공동체에서 행복한 경험,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공동체 식구 모두 올해에도 함께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기대해봅니다.

< 장영미 전도사 >